■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죽어도 살리라　　성경: 요한복음 11장 23-27절

Tag: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11:23-27)

영생을 믿는가?

영생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요즘은 영생에 대한 오해가 많다. 영생을 부정적으로, 지루하고 벗어나고픈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인류는 항상 매 시대마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보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인정 받으려는 갈망, 평안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왔다.

심지어 고대에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삶이 고통스러우면 자신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부모를 산 속에 버리기도 했다. 의술의 발달로 낙태를 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기심과 탐심이 시대별로 다르게 표현된 셈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보편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흙수저의 삶으로 낙인찍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세상은 좋아졌어도 인간의 영성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차라리 가난 때문에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녀와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옛날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불교에는 더 끔찍한 거짓 교리가 있다. 일명 환생 교리다.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도박심리가 작용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번 생은 망한 거 같은데...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지 뭐...)
환생이란 끊임없이 생이 반복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동물로 환생하기도 한단다. 선행을 쌓아야 사람으로 환생한다. 선행의 일환으로 방생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생물을 잡아서 파는 악행을 저지르고, 누군가는 선행을 위해서 그 물고기를 사서 방생해 준다. 주로 물고기를 방생한다. 아예 고기잡이나 사냥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환생은 영생이 아니다. 사실은 환생도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모든 동물들도 환생한다면, 우선 수적으로 인간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기에 어떤 동물은 과거에 인간이었던 적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동물은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 그냥 생태계의 생명현상일 뿐인데 굳이 환생이라는 교리가 왜 필요한가?
동물이었던 존재가 어느날 인간이 되면 그는 인간인가 동물인가?

환생하는 순간 나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만다. 내가 환생했다고 자각하는 순간 자각하기 이전의 나라는 정체성과 환생을 깨달은 나의 정체성은 이중인격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 사실은 과거의 A라는 사람속에 둥지를 틀었던 귀신이, 현재의 B라는

사람속에 들어가면서 A라는 사람의 기억을 이용해 B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차라리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 환생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또 불교적 구원이란 환생이 아니라, 이 지겨운 환생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환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은 어느 문서에도 없고 증언도 없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다 보니 환생을 믿는 자들이 많다. 불교 교리로도 환생은 저주일 뿐이다.

석가는 열반을 설명할 때 윤회라는 생존의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열반이기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무의 차원에서 "열반에 들어간 자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무아지경이란 결국 나는 소멸되는 지경이다. 그것이 구원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구원이란 말인가?
부처 스스로도 그냥 돼지고기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어 가면서 스스로 나는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곁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나요?' '네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라....' 꼴깍...
색즉시공 공즉시색 괘변에 불과함. 결국 소승에서 대승으로 감. 소승은 쇠퇴하나 대승은 괘변으로 성공함. 결국 열반이란 이 세상에서 잘먹고 잘 사는 것?

영생이란 바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다. 죽음이란 몸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덧입는 것을 말한다.

>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후5:2)
>
>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후5:4)

인간이 아닌 모든 생물체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이며 은총이지, 생명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직 영성이 있는(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영생한다.

선한행실은 영생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자의 열매일 뿐이고, 열매의 가치에 의해서 상급이 정해질 뿐이다.
영생이 없는 자의 선행도 선행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질 기회는 없는 셈이다. 믿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의 공로로 이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란, 결코 지니의 요술 램프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 확신을 지향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즉, 오직 믿을 때 성령께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비로소, 영적인 교제/교통을 하고, 법적 지위가 주어지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며, 자녀로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비자는 그가 체류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세례와 성만찬은 믿음에 대한 정식적인 도장날인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없이 성찬식에 몰래 참여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계약서를 인정하시지는 않는다.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바람직한 국민이 있고, 부끄러운 국민이 있다.
-마찬가지. 똑 같은 성도라도 바람직한 성도가 있고, 부끄러운 성도가 있다. 똑 같이 믿어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어떤 성도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시며, 허무맹랑한 기도에는 허무로 응답하시고, 성실한 기도에는 성실하게 응답하신다. 너무도 당연하게.
-대체적으로 누가 훌륭한 성도로 성공하느냐? 보편적으로 열심히 교회생활 잘 하고, 영적 지도에 순종하고, 헌신적이며,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더 잘 도우시는 경향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매우 강조하셨다. 믿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다. 믿을 때 구원열차는 비로소 출발한다. 믿음이 곧 차표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이고, 살아서 믿는 자란,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말한다.
과거의 그들은 죽었지만,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고(성경은 무덤이 열린다고 표현됨) 예수님 이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즉, 그들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믿는 순간 얻은 영생으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신다. 서로 믿으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합법적인 관계가 지속된

다.

(본문)

오늘 분문은 부활에 관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획하셨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셨다.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증거 하셨다.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과 영생의 핵심조건은 믿음이다.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옛 장막, 세속적인 몸만 무덤에 가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몸;부활체)로 덧입는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과 몸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22:18-19)